

# 담양군, 서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산지 선정



## 담양농협 통해 7개 자치구 4275명 임산부 전달 안정적 판매망 확보·농가 소득 증대 기여 기대

담양군이 서울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공급산지로 선정돼 오는 7월부터 서울시 7개 자치구 4,275명의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다.  
‘202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가에는 안정

적인 판로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추진하는 시범 사업으로 서울시 거주 임산부 18,230명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담양군과 담양농협은 먹거리의 철저한 위생과 안전성, 신뢰할 수 있는 유통구조, 생산자 직거래를

통한 합리적인 가격보장, 특히 우수한 먹거리를 생산자로부터 직접 견네 받아 가장 신선하고 맛있게 공급하기 위한 산지 새벽 직배송 등을 서울시에 제안해 최종 선정됐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 친환경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형식 군수는 “담양이 서울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공급산지로 선정된 것은 담양

의 친환경농산물의 우수한 품질이 서울시민에게 인정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며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서울시 학교급식 친환경 쌀 공급’,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서울시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선정되어 우리군 친환경 농산물을 가공식품을 지역 농협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담양=박종영 기자

# 화순군, 유튜브&로컬 매거진 크리에이터 수강생 모집

14일까지 모집...청년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2기

화순군은 지역 자원을 발굴해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2기’ 수강생 20명을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2기’는 로컬 매거진 제작과 유튜브 콘텐츠 기획·연출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유튜브&로컬 매거진 크리에이터 양성반’으로 80시간 교육한다.  
교육은 크게 두 파트로 진행된다. ‘유튜브 콘텐츠’ 파트에서는 유튜브 채널 기획과 연출, 사진과 영상 촬영·편집 등을 배우고, ‘로컬 매거진 제작’ 파트에서는 실전

취재와 인터뷰 기법 교육, 기사 작성과 디자인 편집 등을 수강한다.  
스타 로컬 매거진 편집장과 디자이너, 현직 취재 기자, 유튜버 등 유명 크리에이터들의 강연도 진행된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과 농축산업 종사자를 위한 홍보·마케팅, 스토리텔링 기법 교육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1대1 멘토링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교육 대상은 화순군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49세 청년 20명으로, 신청자 중 거주 지역과 참여자 의지 등을 고려해 수강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교육은 7월 19일부터 11월 1일

까지다. 총 16회에 걸쳐 매주 일요일 오후 1시~6시에 진행된다. 장소는 청년 크리에이터 교육장(화순읍 충의로 100 2층)이다.  
모든 교육과 콘텐츠 제작비는 화순군이 지원하며, 교육 수료자는 12월 26일 개최될 화순 청년크리에이터 페스타 공모전(상금 150만원)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수강 신청 기한은 7월 14일 오후 6시 까지다. 온라인(<http://hwasun.info>)으로 접수할 수 있고, 문의는 (주)로컬업(061-374-1058) 또는 화순군 인구정책팀(061-379-3257)에 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 나주시, 가축분뇨배출시설 특별 점검...“악취 잡는다”

혁신도시 반경 3km 축사 등 집단민원 지역 중점 단속



나주시가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여름철 악취 및 수질오염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나주시는 여름철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 해소와 수질 환경

보존을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반을 편성, 이달 말까지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야간시간대 불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총 627개소(축사 620·퇴비사업장 7)다.  
특히 악취 민원이 잦은 혁신도시 반경 3km 이내 축사, 왕곡·공산면 축사, 전년도 위반사업장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총 6개반 12명으로 꾸려졌으며 1일 2개반을 운영한다.  
점검반 활동은 무허가 시설 설치 여부를 비롯해 악취, 침출수 유출, 부적정 보관, 미부속 퇴비 살포, 장마철 분뇨 무단 배출 등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수질 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뒀다.  
무허가 축사 확인 시 ‘폐쇄명령’ 등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곡성군, 읍내 중심가에 소상공인 지원센터 개소

소상공인 상담·정보제공·사업 신청까지 한번에

곡성군이 6일 곡성읍 중앙로에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상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심 시가지에 마련됐다. 아울러 곡성군은 지난 4월부터 직원을 채용해 도시경제과에서 근무하면서 상담요령과 행정업무 등을 익힐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앞으로 센터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먼저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소상공인 지원 기관 간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종합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경기집체와 소비위축으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통로로



서 가능하게 된다.  
곡성=김광휘 기자

# 장성군,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필수요건 충족해야... 8일까지 신청

장성군이 전남지역의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감염병의 확산세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외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안심식당의 지정 대상은 모범음

식점 23개소를 비롯해 장성 지역에서 운영 중인 희망 업소다.  
안심식당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탈어떡기 가능한 도구(접시, 집게, 국자 등) 비치·제공 ▲개별 포장 등 위생적인 수저 관리 ▲업소 종사자 마스크 착용의 세 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1인 1찬기 사용’과 ‘테이블 간격 1m 이상 두기’도 선택 요건에 포함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8일까지로, 군은 신청업소에 대한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경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심식당에 지정된 업소는 ‘안심식당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포털’ 및 지도 앱 등에 공개되며, 소비자 및 외식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기회도 제공된다.



문화관광의 중심지  
영암



영암군  
YEONGAM-GUN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평  
일

범  
상

한  
속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롯가요센터/월출산 기찬랜드